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공동의회 공고
오늘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보드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종한,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성탄주일예배: 12 월 24 일(주) 오후 12 시.
자녀들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주) 밤 11 시

2017 년 12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서 영수 집사 / 시편 96 편

이번 주 친교 : 전 영자 권사 / 이 미경 집사

다음 주 친교 : 전교인 (성탄주일)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분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분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분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51 호

2017 년 12 월 17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 반주자 : 박 양희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 | | |
|-------------------------------------|--------------------------------------|---------|
| 2017 년 12 월 17 일 | 인도: 이 민영 목사 | |
| * 입례찬송 (Opening Hymn) | 21 장(통 21 장) | 다함께 |
|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 | 다함께 |
|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 다함께 |
| * 찬송 (Hymn) | 84 장(통 96 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 다함께 |
| 대표기도 (Invocation) | 시편(Psalms) 126 편 | 석 동훈 형제 |
| 찬양 (Choir) | "오 거룩한 밤" | 세광 찬양대 |
|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 | 인도자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사(Isaiah) 7:1-14; 8:13-18; 9:6-7 | 인도자 |
| 설교 (Sermon) | "징조와 예표, 여호와의 열심" | 이 민영 목사 |
| * 찬송 (Hymn) | 94 장(통 102 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다함께 |
| * 축도 (Benediction) | | 이 민영 목사 |
|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 | |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혼두라스)

2017. 12. 10. 주일 설교 요약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스 3:10-13; 학 2:1-9; 속 8:9-17; 스 6:14-16, 21-22)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학개와 스가라는 돌아왔으나 여전히 실의에 찬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며 물리적인 성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국들을 저울에 달아본 하나님께서(단 5 장) “내 목자”라고 부르신(사 44:28) 고레스에게 나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시간과 공간과 관계)까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행운을 기뻐하고 불행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실수없는 경륜과 완전한 선하심으로 인도한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몰으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 한 일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고 이듬해 예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방해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주해 살고 있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섭하려다 뜻대로 안되자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낙망이었습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살림은 어려웠고 흉년이 겹쳤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온 재물들조차 먹고 사는 일에 써버렸습니다. 겨우 놓은 성전의 터도 옛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 통곡하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때가 안된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성전을 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손놓고 지낸 세월이 15 년입니다.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여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때가 아니라니요! 풍성히 주신 백향목도 자기 집 짓는데 다 써버렸으면서 흉년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힘을 내서 순종하면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고, 지금부터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비록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장차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과는 비할 수 없이 크리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영광스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만을 본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은혜와 구원은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주신 구원을 받았는데 맨날 요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기에 오늘 화평과 공의를 행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속 8:16-17). 작고 미약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요,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금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형편만을 본다면 초라한 새 성전터를 보고 통곡한 노인들처럼,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 앞에서도 한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진 과거의 영광만을 아쉬워하며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신 영광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원래 새로 시작하는 일은 미숙한 법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쌓은 경험과 업적에 미치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미숙함을 안타까와하기만 할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 시작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우리 경험과 업적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꿈꾸는 것 같이 기뻐지만, 돌이키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열매맺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일은 오늘 손을 굳게하여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은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